



연대도에 있는 오뎅만 몽돌해변. 동근 조약돌에 부딪치는 파도소리가 마을에 힐링을 주는 명품 ASMR이다(왼쪽 사진). 남해의 일몰 맛집으로 정평이 난 통영 미륵도에 위치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에서 바라본 일몰. 잔잔하면서 고운 자태가 강렬한 서해 낙조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통영 | 김재범 기자

지친 심신 치유...친환경이라 더 좋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요즘 피부로 실감하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 화두로 생각하는 사안이다. 관광과 여행도 마찬가지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계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은 이런 요즘 여행 트렌드에 딱 맞는 곳이다. 초여름의 문턱에 접어들 6월,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중 하나인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을 찾았다.

●점점이 흩어진 섬들 사이 명품 낙조

국립공원공단에는 8개의 생태탐방원이 있다. 그중 7개는 산악형(북한산 내장산 무등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가야산)이고 이번에 찾은 한려해상이 유일한 해상·해안형이다.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미륵산이 있는 미륵도에 위치해 있다.

통영시 남쪽에 위치한 미륵도는 남해에서 정평이 난 ‘일몰 맛집’이다. 섬의 일몰명소로는 인근 달아공원이 있지만 생태탐방원의 객실이나 테라스에서 보는 경치도 그에 못지않다. 해질녘이 되면 생태탐방원 앞바다에 점점이 흩어진 속섬, 곤리도, 가마섬, 대장두도, 소장두도, 유도 등 크고 작은 섬들 사이로 바다가 석양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한다. 서서히 고운 황금빛으로 물드는 하늘이 강렬한 느낌을 주는 서해의 낙조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최대 86명이 숙박할 수 있는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인근 한산도와 만지도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일정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햇빛의 안내로 즐기는 섬투어

한려해상생태탐방원의 체험 프로그램 중 눈길을 끈 것 중 하나가 온택트 생태관광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챗봇 안내를 받으면서 즐기는 섬투어다. 생태탐방원 인근 연명항에서 배를 타고 온택트 투어를 시작하는 만지도로 갔다. 배로 15분 안팎이면 도착하는 만지도

탐방원 품은 미륵도 일몰 경치 ‘환상’ 챗봇 안내 받으며 거니는 섬투어 재미 곳곳 퀴즈 풀며 자연스럽게 환경 공부 만지도-연대도 있는 출렁다리 황홀경 한산도서 즐기는 ‘요트투어’도 매력적



연대도에서 바라본 출렁다리. 건너편이 만지도다. 다른 지역의 출렁다리에 비해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풍광과 파도, 해풍이 어우러진 느낌이 꽤 매력적이다.

통영 | 김재범 기자

는 전국에 17개가 지정된 국립공원 명품마을 중 한 곳이다. 24가구 35명이 사는 작은 섬으로 이윽한 연대도와 출렁다리로 연결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섬의 곳곳을 챗봇의 안내에 따라 걷다보면 중요한 포인트에서 장소와 관련된 퀴즈가 나온다. 퀴즈는 환경오염으로 깃털색을 잃어버린 팔색조 ‘알로’의 깃털색을 찾아준다는 것이 미션이다. 미션을 해결하는 문제가 모두 만지도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이곳 정보와 얽힌 옛 이야기를 알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귀한 풍란도 퀴즈를 풀며 건넌 해변 데크길서 만날 수 있다.

만지도에서 연대도로 넘어갈 때 이용하는 출렁다리는 길이 98.1m, 폭 2m다. 규모나 높이가 다른 곳에 비해 대단하지 않지만 다리 아래의 거센 파도와 모자를 가볍게 날려버리는 해풍이 흔들리는 다리와 어우러져 색다른 매력이 있다.

다리를 건너 도착하는 연대도의 숲길에는 해송으로도 불리는 검은 소나무,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섬에는 바다배리길 4구간인 연대도 지깅길이 있다. 난이도가 높지 않고 바다를 끼고 오밀조밀 이어지는 코스여서 걷는 즐거움이 남다르다.

●힐링과 위로를 받는 요트여행

만지도와 함께 온택트 투어를 운영하는 또 다른 코스는 한산도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삼도수군 본영인 제승당을 비롯해 수루, 활터, 영정을 모신 충무사 등이 있다. 워낙 예전부터 통영 관광객의 필수 방문코스라 인기를 얻던 곳인데 생태탐방원의 프로그램은 이곳 요트학교에서 출항하는 요트를 이용하는 것이 매력이다.

20여 분 정도의 그리 길지 않은 뱃길이지만, 갑판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통영항과 섬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다. 보고 있노라면 마음 속 답답함이 사라지고 힐링을 얻는 풍광이다. 그래서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국립공원 치유 프로그램의 테마로도 운영하고 있다.

통영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15

하나투어 “일본여행 예약 2주새 887% ↑”

해외 방문객 패키지여행 허용에 수요 몰려

5월27일 일본 정부가 해외 방문객 패키지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여행사의 일본여행 예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 주(5월30일~6월5일) 일본 패키지 예약은 5월 3주차(5월16~22일) 대비 887.3% 증가했다. 4주차(5월23~29일)와 비교해도 283.8%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체 예약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주 일본 예약은 전체의 24.3%를 차지해 5월 3주차 2.1%, 4주차 6.0% 대비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오사카, 홋카이도, 후쿠오카, 도쿄 순이었다.

출발일 기준으로는 7~8월이 84.6%를 차지했다. 일본여행은 단체관광비자 발급 등으로 인해 7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시기에 예약이 몰렸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힌 관광입국 재개 프로세스에 의하면 안전한 여행을 전제로 여행을 통한 예약과 인솔자 동행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이에 맞춰 ‘하나만 믿고 떠나는 하나팩2.0 일본여행 즐기기’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여행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일본이었다”며 “일본여행이 재개되면 해외여행 회복세는 더욱 뚜렷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HK 여행작가아카데미, 시즌2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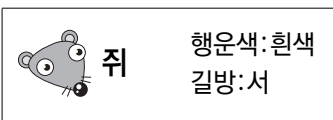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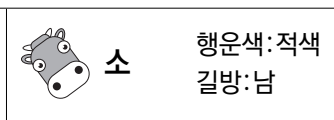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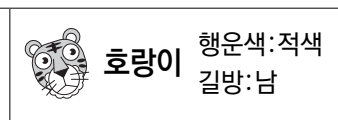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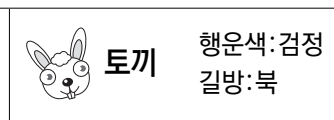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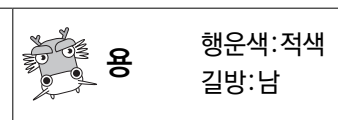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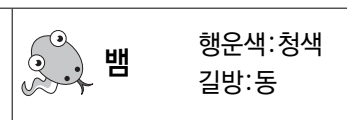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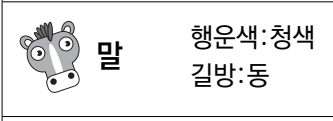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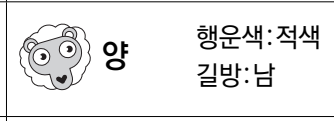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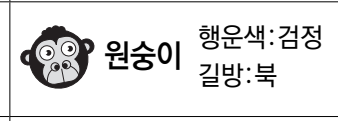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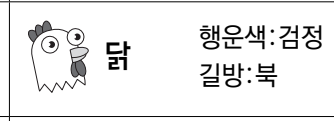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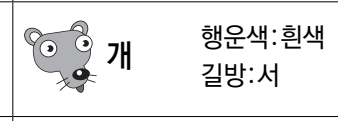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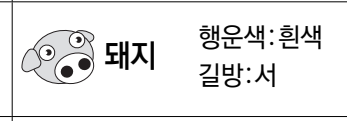
HK 여행작가아카데미가 시즌2의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HK 여행작가아카데미 시즌2에는 국내 여행전문 기자 1호인 조성하 전 동아일보 부국장, 시인이자 여행작가인 최갑수 작가, 박경일 문화일보 전문기자 등이 참여한다. 또한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의 강원국 작가, 정호승 시인, 이병률 시인, 박명화 사진작가와 여행사진가 김경우 작가, 섬 여행전문가 강재은 시인, 오재철 작가 등이 여행에세이 쓰기, 여행사진 촬영법 등을 지도한다. 수강신청은 전화(02-6012-2777) 및 파이브네이처스 홈페이지(www.5natures.co.kr)로 할 수 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 메타버스’ 17일 오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17일 ‘에버랜드 메타버스’를 오픈한다. 로블록스 기반 메타버신 플레이덱 랜드에 맵 형태로 조성하며 에버랜드 콘텐츠가 가진 재미 요소에 게임 방식을 포함했다. 17일 오픈 이후 에버랜드의 5개 지역 중 유러피안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가상 체험 콘텐츠를 먼저 선보인다. 슈팅위더퍼의 주인공 밤밤맨 캐릭터와 물총 싸움을 하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에 도전할 수도 있다. 오픈을 기념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향후 디지털 혁신기업들과 함께 스포츠웨이, 골프장 등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0일 (금) 음력: 5월 12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이성간의 금전관계,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예술이나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날이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쥐띠와 상의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 줄 수 있으나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문서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손실이나 가정불화가 있을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귀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된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장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관재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해외근무와 인연이 좋다. 움직여라.	최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

오늘의 날씨			10일(금)
서울 0/30	인천 0/30	춘천 20/30	
 18 29	 17 26	 15 28	
강릉 0/20	대전 0/20	전주 0/30	
 16 25	 17 29	 17 29	
광주 0/20	대구 0/20	부산 0/20	
 17 29	 16 29	 17 25	
창원 0/2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5 26	 19 26	낮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